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9, 28-36 (2025/3/16, 사순 제2주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중에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빛나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계셨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산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변모하셨다면 어땠을까? 몇몇 제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장소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랬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순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변모하셨다면 과연 제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어쩌면 모두 믿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의 길에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황홀한 순간이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전지전능한 예수님, 영광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에 인간적 한계에 좌절하고, 시련과 역경 앞에 포기하며, 부족함으로 생기는 수많은 잘못 앞에서 회개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인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우리도 거룩하게 변모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죽음이 배제된 영광스러운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 1)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나요?
- 2)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